

「5장. 사회적 행동의 원천」 - 막스 베버

대니얼 팰스, 『종교에 대한 여덟 가지 이론들』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발제 김민아

프로이트, 뒤르켐, 마르크스는 기능주의적 견해를 발전시킴. 기능주의의 전제는 그 이론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찾아냈다는 것. 모든 종교를 추적해보면, 마지막으로 그 저변에는 하나의 상황이나 원초적 원인, 즉 인간의 보편적인 신경증 상태, 개인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요구들, 계급투쟁이라는 세상의 역학 등이 깔려 있는데, 이런 근본적 원인의 관점에서 종교를 설명해야만 종교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

종교에 대한 참된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종교적 행위에서 치밀한 합성물인 종교를 분류시킨다고 해서 단 하나의 성분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물어야 함. 20세기 초, 인간 행동의 복잡성에 대해 막스 베버가 큰 관심을 기울임. 그는 정치와 지리와 문화사 간의 연관성을 추적했고, 계급갈등의 근원을 탐구했으며, 사회적 신분집단들의 특징을 기술하고, 인간 행동의 유형과 사회적 권위의 형태를 구분했으며, 행정기관의 역할을 검토하며, 사회생활에서 종교 행위와 믿음의 위력을 파악했음. 그는 사회를 서로 다른 인간 활동이라는 실들이 위아래로 겹쳐 꼬이면서 단단히 서로 얽혀 짜인 직물(tapestry)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음.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에게 종교는 항상 결과일 뿐 원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음. 베버에게 인간의 여러 형태의 사회 활동은 일상적으로 한 점에 집중되며 서로 영향을 주는 것. 뒤르켐, 프로이트, 마르크스에게 종교는 항상 반영(reflection)이었지 실체(reality)가 아니었음. 그러나 베버의 사회학에서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상호적이며, 때로는 역전되기도 함. 그는 사회적인 인과관계의 복잡성을 비환원주의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음. 종교는 항상 원인인 것도 아니고 항상 결과인 것도 아니며, 오직 특수한 사실들과 변하는 상황들만이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인과 결과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으며, 혹은 원인과 결과 둘 다일 수도 있음.

배경: 가족, 정치, 학문

아버지 막스 베버(Max Weber senior)는 프러시아 하원에서, 후에는 국가자유당원으로 독일제국 의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음. 어머니 헬레네(Helene Fallenstein Weber)는 베를린 정부 장관의 딸로 많은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아버지보다는 더 내성적이고 깊이 종교적이었으며, 강한 사회적 양심을 갖고 있었음. 아들 막스는 정치와 정부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관심을 공유했지만, 어머니의 성찰하는 태도와 윤리적인 민감성, 인도주의적 이상주의를 물려받았음. 그는 베를린에 있는 대학 예비학교에서 철학, 고대와 중세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고전 작가들을 광범위하게 읽었으며, 괴테의 모든 작품들을 독파했음. 1882년, 법학과 경제사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 입학. 1889년에는 중세시대 이탈리아 무역회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후 법률공부를 마치고 베를린 법원에 자리를 얻었음. 1892년 고대 로마의 농업과 법의 연구로 대학 강사자격을 취득했고, 그 즈음 먼 사촌 마리아네 슈니트거(Marianne Schnitger)와 약혼하여 1년 후 결혼함.

스물아홉 살에 결혼한 후부터, 직업적으로 촉망받는 학자로 경제전문가들의 단체인 《사회정책협회》(Verein für Socialpolitik)에서 동부 독일의 이민과 농업노동, 새롭게 제정된 독일 증권거래에 대한 분석을 수행 및 출판함. 1895년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전임교수로 임명, 그 다음 해에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비슷한 직위 받음.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변화를 겪음. 그와 부인은 이상적으로 인격적이며 지성적인 동반자였지만, 서로 동의하여 자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성관계를 전혀 갖지 않음.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를 지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아버지에게 맞선 후, 화해하기 전에 아버지가 죽음. 이로써 그는 심한 감정적 허탈에 빠짐. 1897년부터 1901년 사이와 그 이후,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증상에 시달려 지치고 안정하지 못한 채 불면증으로 인해 교수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됨. 몇 차례 휴직했다가 결국 하이델베르크대학교 교수직 사임. 1904년 경제학자 베르너 쾰만(Werner Sombart)와 에드거 야페(Edgar Jaffe)와 함께 학술지 《사회과학과 사회정책 아키브》(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en und Sozialpolitik)의 공동편집인. 가족의 기금과 충분한 유산의 도움으로, 종교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논문을 《아키브》의 포럼으로 출판. 1918년 비엔나대학교 교수직을 다시 받아들였으나 2년이 채 못 되어 폐렴에 걸려 56세의 나이로 죽음.

사회학 연구의 세 가지 도구: 이해, 이념형, 가치관

1) 이해(Verstehen)

나중에 해석사회학(interpretive sociology)의 특징으로 알려진 개념. 베버가 처음 혹은 유일하게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중심으로 삼음. 이해의 원칙은 인간의 행동들을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다고 추정하는 것. 자연과학은 비정신적인 물체들과 과정들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과학은 정신적으로 추동되는 인간의 활동들을 설명하는 것. 인간은 의식적이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 의미 부여. 인간 행위들은 자유에 대한 믿음 등 내적으로 지닌 생각과, 사랑의 느낌처럼 내적으로 경험하는 감정들에 의해 좌우됨.

‘방법론 논쟁’(Methodenstreit)의 중심에는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인과관계의 보편적 법칙을 세움으로써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음. 인간 문제들을 설명하는 법칙들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 제기. 처음에는 경제학자들이 과학적인 ‘시장의 법칙들’을 인간 행동에 적용하여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주장. 비슷한 생각이 다른 분야에서도 생겨나, 모든 인간 행위들에 대한 전체적인 자연과학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 나옴. 다른 이들은 적극 반대. 철학자 빌헬름 빈델반트(Wilhelm Windelband)는 과학은 그 자체가 반복하는 과정들을 다루어 ‘보편적 법칙으로’(nomothetically) 사물들을 설명하지만, 인간 행동들은 성격상 유일한 경우로 ‘특수사례의’(idiographic) 설명이 요구된다고 주장. 이 주장은 ‘자연 혹은 법칙의 과학’과 ‘정신 혹은 인간문화의 과학’을 근본적으로 분리.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는 적어도 과학적 의미의 ‘설명’으로는 인간 행동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단언.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직관적으로 느끼려면, 이해(Verstehen)를 사용해야 함. 이성보다는 상상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재창조한다는 것.

베버는 여기에서 중간 입장. 딜타이 쪽으로 기울었지만, 전적인 것은 아님. 그는 인간 행동들이 자연 과정들과는 달라서 딜타이가 의미와 동기들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것은 옳았다고 인정했으나, 딜타이의 이해 과정이 직관적인 것이라고 보고 상상력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봄. 단 한 가지 사회과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합리

적으로 전개하는 것. 이해는 과학의 한 형태로서, 동기들과 의미들이 원인들로 작용하는 역할을 인식함으로써, 인간 행동들을 설명하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법. 사회과학은 확실성을 성취하거나 확신을 갖고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외적인 행동들을 지배하는 내적인 동기를 간파함으로써 인간행위에 대한 유용한 설명에 도달한다고 말함.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베버는 사회적 가치들이나 믿음들이 개인의 마음속에서 동의를 얻는 한에서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고 봄. 인간 행동들의 내적인 동기 강조. 사상이나 가치들은 구체적인 ‘담지자들’(bearers)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출신을 따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유도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침. 공동체를 개인들의 혼성집단(mixed assemblage)으로 보는 경향인데, 그 안에서 대다수가 소수에게 자신들을 지휘하도록 권한을 양보한다고 봄. 그 소수가 문화적 가치들의 보존자로서, 이들이 사회를 형성하며 그만큼 사회가 그 소수와 대다수를 형성.

2) 이념형(Ideal-Types)

사물의 일반적 부류들에 대해 타당한 진술을 하는 것이 사회학의 전체 목적. 사회 연구에서 일반 범주들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그는 이념형 사용.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일반화(generalization)와는 다름. 일반화는 한 집단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특색이나 특성을 밝히는 것. “모든 왕은 나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왕의 이념형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덧붙여서, 통치자는 어떠한가 한다는 일종의 의도적 과장이나 여러 속성들을 덧붙여서 최대의 윤곽을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왕족 출신, 남성, ‘신이 준 왕권’에 의한 통치, 여왕, 신하들이 있는 궁전, 왕관, 충성을 맹세한 귀족 등. 과거나 현재나 실제로 왕이 이 모든 특성들을 다 지니는 것은 아님. 이념형은 모든 경우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제공. 그것에 의해 시간과 장소를 망라하여 왕들을 비교할 수 있음.

베버의 가장 유명한 이념형으로, 사회적 권위의 세 가지 유형을 전통적 권위, 법적 권위, 카리스마적(charismatic) 권위로 분류. 전통적 권위의 경우, 사람들은 태고 시절부터 원로들의 통치를 받아들인 부족사회에서처럼 ‘언제나 있었던’ 세력의 양상 인정. ‘족장주의’(patriarchalism)와 ‘세습주의’(patrimonialism). 법적 권위는 현대사회의 가장 공통되는 권위. 현대 관료제도에서 가장 순수하게 표현됨. 모두가 법체계를 지키기로 동의하고, 위계적인 계급관료제도의 훈련받은 전문 유급 공무원이 직업적 의무감으로 법체계를 일관하게 적용할 것을 생각하는 것. 카리스마적 지배는 종교에서 특히 중요. 이 경우 지도력은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강력한 개인적 매력 때문에 발생. 이런 인물이 사회에 나타날 때, 그는 권위, 지혜나 신성을 주장하는 순수한 위력으로 문명사회의 방향을 바꿈. 카리스마는 사회와 역사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동인(動因). ‘탈마법화’(disenchantment), 전통사회에서 오랫동안 정착했던 주술과 신들의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신앙이,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사고 경향의 압력을 받아 점차 붕괴되는 것. 카리스마의 일상화, 즉 ‘관례화’(routinization). 한 예언자가 죽은 후 그의 메시지의 강렬함이 식기 시작하면서, 그 메시지가 살아남기 위해 기관들 속에 관례로 고정될 때 생기는 점진적 변화. 설명을 위한 이념형의 유익한 점은, 이념형을 통해 틀 속에서 비교할 수 있고 행동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

3) 가치들

베버는 사회과학이 다른 과학들과 마찬가지로 가치관에 매이지 않는(value-free) 노력이야 한다는 입장. 모든 과학자는 그가 경험하는 대로의 실제 세상에 대한 설명 추구하며, 개인의

가치판단은 그 과정에서 배제해야 함. 그러나 베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치와 관련된 (value-relevant) 고려들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 사회과학자가 되려는 기본 결정까지도 가치의 선택을 나타냄. “가치에 매이지 않은” 원칙을 따르려는 방침 자체가 실제로는 가치에 의해 좌우된 선택. 이해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행동들만이 아니라 그 행동들에 행위자들이 부여하는 의미들도 설명해야 함. 인간 행동을 설명할 때 두 쌍(sets)의 가치들 사이에서 절충하게 되는데, ‘해석하려는 사회제도 안의 사람들의 가치들’과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화의 가치들’임. 해석자들이 제기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설명들은, 그들 자신의 때와 장소의 문화에 매인, 가치와 관련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베버는 마르크스와 니체(Freidrich Wilhelm Nietzsche)에게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은 어떤 보편적 도덕 가치들이 인류 모두를 얽어맨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 베버는 개인들과 문화들이 자기들 자신의 가치들을 임의로 만들어내며, 하느님이나 자연, 혹은 어떤 것이거나 영원 불변하다고 자칭하는 것들이 그런 가치들에 대해 우주적인 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음.

종교에 관한 저술

1)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04-1905)

《아키브》의 새로운 공동편집자가 된 후 쓴 두 편의 논문으로 학술지에 처음 발표한 것. 베버는 서유럽에서 종교와 경제적 자본주의 발생과 현대문명의 탄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신자들보다 사업주, 자본 투자가와 노련한 기업경영자 계급이 더 많다는 사실에서 출발. 이들 개신교인들의 깊은 종교심 자체 안의 무엇인가가 그들로 하여금 사업상 진지한 기업가들이 되도록 고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동등함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매일의 노동에 대한 매우 인습적인 견해를 뒤집어엎음. 그의 가르침은 소명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모든 사람들을 포함함으로써, 특별히 종교적 소명이라는 가톨릭의 개념을 해체. 루터는 소명의 개념을 ‘세속화해서’(secularized) 교회가 그동안 교구 신부들이나 수녀들의 헌신적인 삶에 부여했던 중요성만큼이나, 농부들이나 상인들의 매일의 노동에도 중요성 인정. 종교적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느님으로부터의 소명이므로,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임. 루터의 “세속의 소명”(secular calling) 개념은 개신교인들이 사업에서 보이는 열정과 성공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지만, 거기에서 그침.

스위스에 살던 프랑크 출신 법률가 장 칼뱅은 예정론(predestination)을 강조하여, 하느님만이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여, 어떤 이는 천국에 가고 영원히 저주받은 이들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 많은 사람들은 전권을 행사하는 신비 속에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느님 앞에 홀로 두렵게 서 있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영혼의 깊은 내면적 불안을 느낌. 후대 칼뱅주의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세상 속에서 참된 신앙이 요구하는 대로, 취하지 말고 검소하게 계율에 따라, 세상일에서 하느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하느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삶을 살도록 권함. 그렇게 살면 번영을 기대할 수 있고, 검소한 가운데서의 번영은 하느님에 의한 선택받음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세사적인 노력과 재산취득에 대한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 가져옴. 종교 개혁 이전에는 돈이나 재산을 늘리려는 행위는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 가톨릭 신학에서, 가난한 자는 향

상 하느님 마음에 가까이 있지만, 부자는 어두운 그림자 밑에서 살았음. 그러나 칼뱅 신학 하에서는, 재산을 추구하는 것이 미덕이 됨.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 장로교인들, 감리교도들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와 그 외의 다른 칼뱅주의 집단들 안에서, 검소와 자제를 강조하는 격언들, 개인적인 연약함과 방종함에 맞서서 싸우며 살아온 생애 전체를 기록한 일기들과 자서전들, 반복되는 설교 주제들로서 자제, 진지한 자기부정(self-denial), 단련과 근면, 검소와 투자, 시간과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등을 발견.

베버는 이를 “세상 속의 금욕주의”(inner-worldly asceticism)라 부름. 사회를 떠나서가 아니라 매일의 사회 속에서의 자기부정. 이 윤리가 현대의 모든 자본주의 기업을 움직이는 정신임. 1600년대 런던이나 로테르담의 칼뱅주의 사업가들 이끌어 간 참된 자본주의 원칙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돈을 버는 것임. 써버리는 대신에 저축하고 재투자하여 기업가의 재산이 늘어남.

이처럼 독특한 경제활동의 현대적인 형태를 형성한 것은 자본주의 정신이 관건이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님. 자본주의의 등장에 관한 논의를 이끄는 이념형을 세우는 데서 다른 요소들도 열거하는데, 합리적인 부기 방식, 집과 분리된 사업장소와 사적 재산과 법인회사의 공적 재산의 분리, 치밀한 계산에 근거한 결정, 노예보다는 자유민들의 노동을 이용한 점, 엄밀한 수학과 경험에 의거한 과학에 의존한 것, 법의 규제와 질서 있는 경영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에 의존한 것 등. 이 모든 요소들은 서구사회에서 폭넓은 ‘합리화’(rationalization) 패턴에 속하는 것. 자본주의가 이와 같은 더 큰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개신교 윤리에서 비롯된 특수한 추진력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태동하지 않았을 것.

베버는 종교가 사회구조나 경제세력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라고 결론지음. 재산의 취득에 관한 태도를 뒤엎도록 앞장선 것이 개신교의 새로운 종교적 생각과 행위였으며, 그 반전(反轉)으로부터 오늘날 서구문명을 정의하는 상업, 시장, 자본주의의 문화가 도래되었다고 주장.

2) 『종교사회학』(Sociology of Religion)

개신교를 넘어서 보다 폭넓은 해석의 범주들, 즉 이념형을 제시.

① 종교지도자: 주술사, 사제, 예언자

주술사(magician). ‘무아경의 상태’(ecstatic states)를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영성에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고 간주됨. 베버는 이들이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들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봄. 초기 사회들에서 주술사는 “카리스마를 영구히 받은 자”로 부족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베버는 주술을 종교와는 다른 원시과학의 형태로 보지 않았음. 주술은 어느 때건 심지어는 복잡한 현대 종교체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

사제(Priest). 주술은 특별한 경우의 것으로, 당장 급박한 염려들에 집중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필요가 생길 때 주술사에게 부탁. 사제는 특정한 종교 공동체와 관련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체제가 갖춰진 곳에서 활동. 사제는 상주하는 유급 직원. 그의 카리스마는 개인적인 매력에서가 아니라 직무에서 옴. 사제의 ‘전문적’ 지위는 그가 관장하는 의례와 그가 지도하는 평신도에 의해 규정됨. 이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질서를 소중히 여김. 사제들이 사회의 구조와 안정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은 대부분의 문명에 발전을 가져온 하나의 원천. 사제들은 우주적 질서를 구체화하거나, 신도들의 공동

체에 그 질서를 전달하는 데 일정한 역할 감당.

예언자(prophets). “카리스마의 순전히 개인적 담지자(bearer)”. 강력한 사명의식을 지니고 모두에게 포괄적인 “종교의 교리나 신의 명령” 선포.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 받음. 예언자는 수고에 대해 대가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봄. 그의 권위는 종교적인 직무에서 오지 않고, 그의 인품과 메시지의 혁명적인 힘에서 옴. 세계의 대종교들 대부분은 카리스마적인 삶과 강력한 메시지로 당시의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예언자적인 인물들에서 비롯됨. 두 유형이 있음. ‘모범적 예언자(exemplary prophet)’는 자신의 강력한 모범을 통해 가르치는 현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혜와 진리의 길을 가르쳤지만, 소수만이 그 길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음. ‘윤리적 예언자(ethical prophet)’는 지혜의 삶의 모형을 보이는 현인으로서가 아니라, 전능하고 인격적인 하느님에 의해 그의 뜻을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도구로서 자신을 표현. 이들의 사명은 하느님의 사자(使者)로서 대변하고, 하느님이 명하는 우주적 윤리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 창시자의 카리스마를 어떻게든 후계자들이 이어받아야만 함. 카리스마의 ‘관례화’는 예언자의 영감을 주는 은사(gift)를 종교기관의 관료제도 속에 영구적이며 고정된 형태로 전환하는 것. 이런 방식을 통해, 성격상 예언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영감에 반대하는 사제들의 관료체제가, 예언자가 죽은 후에는 그의 최상의 협력자가 됨.

② 사회계급과 집단

다양한 각각의 사회적 집단들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종교라는 기획 내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며, 사회과학은 그 행동에 대한 일정한 전형적 유형들을 분별할 수 있음. 시골의 농부들은 자연과 가까이 살면서 날씨에 의존. 따라서 그들은 거의 언제나 주술적 관례들에 기울어짐.

특권층 계급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예언적 종교(prophetic religion)에 저항. 그들의 명예와 특권에 대한 의식은, 생활방식을 바꾸라는 요구와 사제나 다른 하급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라는 요구에 모욕을 느낌.

중산계급은 종교에 대한 반응에서 다양함. 부유한 상위 중류계급의 상인으로 구성된 ‘상업 귀족 사회’는 종교에 대해 진지한 관심 보이지 않음. 중하류 계급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장인들과 기술자들은, 자연에서 멀리 떨어져 주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보상이라는 윤리적 감각에 의해 강한 자극을 받는 집단으로서 예언적 종교에 가장 큰 매력을 느낌. 예언적 종교들은 ‘구원종교’(salvation religions)로 발전. 구원종교는 내면적인 영적 결단이나 인생의 한계들과 슬픔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제공. 구원종교의 중심에는 구세주가 있는데, 사회계급이 낮을수록, 신이 인간의 모습을 취한 속량(redemption)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이 더 강렬해짐. 평범한 사람들은 추상적이며 비인격적인 우주적 질서에 조율하는 것을 어려워했으며, 초월적 전능의 신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들의 영적인 탐구와 싸움을 도와줄 성인들과 영웅들 혹은 사소한 신들과 여신들에 대한 다양한 제례들 개발.

엘리트들 사이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참된 우주적 목적(true cosmic purpose)을 찾으려는 깊은 열망 있음.

③ 믿음과 행위

세계의 모든 예언적 종교가 다루어야 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지적인 문제는 악에 대한 불가사의, 혹은 신정론(theodicy)임. 어떻게 해서 궁극의 선이라는 개념이, 흠 많고 고난으로 가

득 찬 매일의 세상과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한 종교의 반응은 세 가지 이념형으로 구분. 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유형. 이 세상 안에서 정의가 최후 승리하는 미래 어느 시점에 악이 해결될 것으로 보거나, 이 생애 밖에서 다른 왕국이나 내생에서 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하느님이나 우주는 단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정신적 추리로 결코 궁극적 질문들을 헤아려 볼 수 없다는 유형. 우주에는 두 가지 궁극적 실재가 있어서 선한 신(a good God)과 악한 신(an evil God)이 있든가, 순수하고 영원한 영의 영역(a realm of spirit)과 죽음과 부패에 지배받는 물질의 영역(a realm of material things)이 있다는 유형. 대개의 종교는 각각의 유형으로부터 서로 다른 요소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혼합하여, 어떻게 각자가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 최후의 평화나 구원을 찾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교리 제공. 이 구원 프로그램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뉨.

인간의 노력을 통한 구원. 영적인 선수들(spiritual athletes)은 자신들이 도달한 상태를 주장하고, “일반적 수준의 도덕성”을 무시하며, 완전한 삶을 추구. 이러한 영적 영웅주의는 두 유형으로 구분. ‘금욕주의’(asceticism)와 ‘신비주의’(mysticism). 영적 영웅주의를 무대와 관련하여 구분하면, 일상생활의 세상 안에서 추구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추구하는 형태가 있음. 베버에게 금욕주의와 신비주의 사이의 이 구별은 문화적으로 중요함. 이것은 동양과 서양 종교 간의 차이를 강조. 동양-아시아의 종교적 이상은 신비적 명상인 것에 반해, 서양은 행동주의적 금욕주의 경향을 보여 왔음. 베버는 이에 대한 철학적이며 역사적인 이유도 제시함. 서양의 구원종교는 모두 초월적인 전능한 창조주 하느님을 주장하는데, 그 하느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온전히 분리된 분이며 그의 피조물과 융합될 수 없음. 반면 동양의 신비주의는 영적 상승의 통로를 약속하여, 이를 통해 인류가 신과 융합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도피의 기쁨을 느낀다고 봄.

선물로서의 구원. 베버는 이에 별로 주목하지 않음.

④ 종교와 삶의 다른 영역

경제: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반적 관례가 거의 보편적으로 자선 혹은 구호의 교리로 나타남.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정치: 예언적 종교들이 구원이나 사랑이라는 보편적 교리를 선언할 때마다 정부와 충돌. 대체로 종교는 정치질서의 독립성을 수락하거나 묵인함으로써 타협을 구해야 함.

성(性): 성적인 욕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주의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금욕주의의 속박을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욕구. 일반적으로 종교는 성을 불신하여, 여성은 부차적인 지위에 임명되고, 모든 윤리체계에서 결혼은 성애나 낭만의 제도라기보다는 법적 제도임.

예술: 예술적 표현이 이미지와 상징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친화성 지님. 그러나 예술이 종교적인 목적에 공헌하는 기교의 역할을 그만두고, 심미적 가치를 독립적으로 주장하여, 사람들이 창작된 미를 통해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종교와의 충돌 불가피.

3) “세계 종교들의 경제윤리”(The Economic Ethic of the World Religions)

“다섯 개의 종교들, 혹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대중들을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는, 종교적으로 결정된 인생 법규 체계” 모두를 탐구하겠다는 의도. 계획했던 책들 중 세 권, 즉 중국 중

교, 인도 종교, 유대교에 대한 책들만 완성. 세계를 변화시킨 경제체제적인 자본주의가 도대체 왜 종교개혁 이후 두 세기 안에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났으며, 왜 하필이면 오직 유럽과 북미에서만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 함.

① 『중국의 종교』(1916)

중국의 도시는 자치, 독립의 특권, 법적 권한, 조합과 우애단체 같은 특징 발전시키지 못함. 백성들은 황제에게 맡긴 세습적 제도들을 지키고, 유교 엘리트의 통치를 자발적으로 수락. 전통주의와 수동적인 태도 때문에, 중국의 민속 전통이나 중요한 철학체계들 모두 사업이나 교역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인센티브 제공하지 못했음. 수학과 과학 기술에서 상당히 일찍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거래에서 합리적인 이윤 지향적 활동에 매우 중대한 합리적 공평성(연고주의처럼 친구나 가족을 돕는 “편애적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발전시키지 못했음. 자본주의 정신 태동하지 않음. 유교는 규율을 통한 자기부정의 삶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정복을 추구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있어왔던 그대로의 전통적이며 안정되고 변화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윤리로 만족.

② 『인도의 종교』(1916-1917)

카스트(caste) 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은 종교. 브라만 지성인들은 이런 계급 구분을 우주의 대본인 것으로 기록. 이들은 모든 생명이 윤회(*samsara*), 혹은 재생이라는 우주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이 법칙은 사람의 영적인 혹은 물질적인 행위로 누적된 업보(*karma*)의 원칙에 따라 자연과 사회 모두를 다스린다고 주장. 이에 대해 저항의 종교인 불교와 자이나교가 태동. 불교의 전적인 금욕주의적 단련과 명상의 생활을 따르든가, 모든 생명들을 철저히 존중하는 자이나교의 길을 가든가, 두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한 사람들에게 탈출의 희망이 있음. 대중들은 영적인 선수들이 아니어서, 영적인 거장들이 성취한 높은 단계에 도달할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음. 대중은 영원히 돌아가는 환생의 바퀴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끝없는 절망만을 약속하는 운명에 체념.

영(零)을 포함한 십진법의 계산 체계가 있었고, 수공업과 교역의 중심지들이 번창했으며, 전문 노동자들과 그들을 뒷받침하는 조합들, 독립적인 상인들이 있었고, 세금제도 역시 심하지 않았음. 그러나 사회와 경제가 압도적으로 지방적이며 관습적으로 남아 있어 진정한 자본주의 기업이 발전하지 못함. 개방된 자치도시들이 생기지 못함. 주요 원인은 세습적인 카스트 제도로, 별개의 조합들과 계층들을 하나의 시민 공동체로 통일하는 것을 막았으며, 가족이나 계층의 유대관계에 근거한 어떤 연고주의도 거부하는 공평한 법과 도덕체계 아래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 방해. 힌두교의 전통적 교훈은, 인간의 행동, 물질적 세상, 현재의 삶에는 결국 우리가 부여할 영속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 인도에는 세상으로부터의 은둔에 능숙한 엘리트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가득했지만, 세상과의 조직적인 용무를 통해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자기부정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음.

③ 『고대 유대교』(1917-1919)

고대 유대교의 예언자들은 윤리적 유일신교의 메시지 선포. 하느님의 지고의 위협을 선포하고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 유대교 신앙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는 신앙과 평생의 순종에서 구원이 온다는 것. “전적으로 윤리적인 인격”, 즉 개인의 삶 전체가 토라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습관을 통해 도야된 인격이라는 이상 제시.

유대인들은 박해자들에 대한 '원한의 윤리'에 짓눌려, 이중도덕 채택. 같은 유대인들과의 거래에서는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적용하고, 이방인들과의 상거래에서는 낮은 표준 적용. 토라의 금지 명령 때문에, 이자를 받는 대부를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할 수 없었으나, 이방인들에게는 할 수 있었음.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

분석

1. 베버와 뒤르켐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원형 상태에 가까운 하나의 종교 사례에서 시작. 대조적으로 베버는 종교공동체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문화적 문제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현대 초기에 서양문명을 변화시킨 새로운 혁명적 경제 행위 형태가 태동했는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 문화, 사례, 관습, 믿음에서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영역 탐색.

뒤르켐은 종교에 대한 초점이 최초의 형태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화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 있음. 베버는 이념형들이 각각의 새로운 문화적 혹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한 시기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사라지고, 그 후에 다시 나타나는가에 주목. 베버는 뒤르켐의 기능주의적 환원주의에서 벗어남. 그는 종교의 믿음들과 실천들이 사회현실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음.

2. 베버와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그의 역사적 연구를 서구문명에 국한. 특히 종교의 환상들이 경제적 착취에서 비롯된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냄. 반면 베버는 종교 활동들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봄. 세계종교 체계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차이점들 때문에, 단 하나의 설명 이론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설명 이론들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

프로이트, 뒤르켐, 마르크스와 베버의 차이점은, 인간의 생각과 믿음과 동기는 인간 행동의 실제적이며 독립적인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 한 인간 행위자 마음속의 생각은 인간 행위의 실제 원인. 그는 마르크스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자본주의 혁명의 핵심적 원인이 어떤 물질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적 사상을 논리적으로 뒤따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 그에게는 의도가 중요한 것으로, 인간이 짜내는 의미의 그물망(web of significance)이, 그 아래 놓여있는 물질적이며 사회적인 구조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변화시킴.

비판

1. 일관성

베버는 종교사상이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다른 논의에서는 그 법칙에서 벗어남. 유일신론의 기원, 무슬림의 하느님 관념 등을 설명할 때 물질적인 경제상황을 근본 현실로 제시하고, 종교 관념이란 정치권력과 지형을 단순히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

2. 사회과학과 종교

베버의 목적은 현상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광범위한 지식을 충분히 동원하고, 흔히 그 물질

적 상황, 정치적 영향, 경제적 조건, 사회세력들, 계급이나 신분집단의 관심만이 아니라 종교 사상과 행동을 포함하는 복잡한 관계망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음. 그러다 보니 그 자신이 과학적 사회학자로서 원했던 만큼 일반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학을 탄생시키지는 못했음. 그의 학문은 순수한 사회과학이라기보다는 유익한 역사학처럼 보임.